서 평

인문논총 제77권 제4호 (2020.11.30), pp. 309~319
[DOI] https://doi.org/10.17326/jhsnu.77.4.202011.309

개벽의 길과 문명개화의 길

[서평] 이영호(2020),『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99』, 푸른역사, 411쪽.

김 용 휘*

1. 동학・천도교와 기독교

동학・천도교와 기독교(개신교)는 한국 근현대 역사에서 큰 자취를 남겼다. 동학・천도교는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갑진개화운동, 3・1운동, 그리고 1920년대 문화운동과 해방공간에서의 통일운동 등 한국의 현대 정치와 사회운동에서 굵직한 자취를 남겼다. 그런가 하면 1885년 조선에 처음 들어온 기독교는 근대의 핵심 자원인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농촌계몽운동과 야학운동으로 유교적 사유에 갇혀 있던 당시 민중들을 계몽하는 성스런 사명을 감당했다. 또한 기독교는 서구적 근대화의 첨병으로써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근대적 인재 양성에 기여해 왔다. 사상적 측면에서도 유교 일변도의 사회에서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등장은 한국사상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적어도 두 종교는 해방 전까지는 서로 경쟁하면서 사회

* 대구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의 중심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천도교와 기독교는 많은 유사성과 상통성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 실재를 부르는 명칭에서도 하나님, 한울님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고, 또한 서북지역에 많은 교인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그리고 분단체제가 야기한 반공주의와 보수성에서도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천도교와 기독교는 똑같이 서북지역에서 급성장하였고, 이들이 한국전쟁 기간에 대거 월남하면서 차츰 천도교와 기독교의 주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 종교는 반공이라는 정서에 기초한 정치적 보수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다른 점이라면 기독교가 미국 근본주의의 성장신학과 개발 독재식 근대화 프로젝트가 결합된 천민자본주의의 급행열차를 타고 급성장했다면 천도교는 해방 이후 근대화의 낙오자가 되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주목하고 비교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물론 신관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간혹 있었지만,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 갈등과 연대의 양 측면을 아우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책이 나왔다. 이영호 교수의『동학・천도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연대, 1893~1999』(푸른역사, 2020)이다. 이 책은 동학・천도교와 기독교가 동학과 서학이라는 대척점에도 불구하고, 자주독립과 근대화의 과제를 놓고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3・1운동에서 연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 3・1운동에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연대하게 된 것은 근대종교로 차원을 달리하게 된 천도교가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공간에서 기독교와 소통하며 경쟁한 경험의 결과이며, 천도교가 기독교를 따라잡기 위한 15년에 걸친 모방과 경쟁 위에서 가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를 모델로 한 천도교의 근대종교화, 천도교와 기독교의 경쟁을 통한 상호 교세의 확장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평안남북도의 교세 및 평안북도 군단위 교세를 비교하여 이 지방 3・1운

동 전개양상을 분석하면서 천도교와 기독교가 민족적 의제를 앞에 두고 연대운동을 전개하게 된 양상을 면밀히 고찰하고 있다.

또한 동학과 천도교의 노선 전환과 단절에 주목하여, 천도교가 개편 과정에서 동학의 남접 세력이 주도한 동학농민전쟁의 역사를 교단사에서 삭제하고 결별하여, 문명개화노선으로 전환함으로써 그 계통에 속한 기독교와 연대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책은 갈등 속에서도 존재한 두 종교 간의 소통 통로를 규명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 사례로 동학의 남접 세력이 기독교의 외피를 쓰고 변혁운동을 전개한 영학당 사례나 황해도 동학군 봉기를 지켜본 메켄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고 있다. 특히 존스와 메켄지 사례를 통해 한울님, 하나님의 신관의 유사성을 통해 두 종교의 소통 통로가 상존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천도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일제강점기의 문화운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 이후 3·1운동까지의 노선의 변화를 중심으로 동학계열과 천도교를 조명하고, 그것을 기독교와 연관시켜 논의함으로써 오늘날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2. 천도교는 단순히 문명개화를 추구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과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로 최근의 철학계와 종교계의 최근 연구를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다. 논의가 너무 역사학계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또한 기존의 남북접에 대한 견해, 천도교를 문명개화노선으로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역사학계의 입장을 되풀이할 뿐 최근의 연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은 “동학이 서학에 대한 학문・종교・사상적 대안으로서 1860년 창도되었다”고 보면서 동학은 서학에 대응해서 나온 학문이자 종교로 보고 있다. 물론 이런 관점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자들은 여전히 이런 관점으로 동학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원래 ‘동학’의 ‘동’은 ‘서’에 대한 ‘동’이 아니라 ‘동국’의 ‘동’으로 볼 필요가 있다.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는 『동경대전』에서 “내가 또한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나 학인 즉 동학’이다.”라고 하여 ‘동’을 ‘조선’의 의미로 쓰고 있다. 또한 1864년 경상감사의 심문 과정에서 동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운은 ‘동국의 학이라는 의미’라고 분명하게 답하고 있다.[1)]

최제우의 문제의식에는 단지 서양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의 유학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의 『동경대전』에는 곳곳에 유학을 대체해서 우리학문으로서 동학을 세웠다는 자부심이 녹아있다. 서양제국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고, 천주학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는 유교적 질서가 무너지고, 당시 고통받던 조선 백성을 위해 ‘동국의 학’으로서 우리학문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그의 본래 의도에 더 가까울 것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중국의 의학에 대해 우리 의학을 천명했듯이 최제우에게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동학’을 천명했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동학을 너무 서학에 대비되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일면적 이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동국의 학’이란 관점에서 동학을 볼 때 수운의 원의를 좀 더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며, 동학에 대한 해석의 지평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

둘째, 이 책에서는 천도교 개편과정에서 이전의 동학농민혁명의 역

1) 『일성록』, 「경상감사서헌순장계」.

사를 완전히 삭제, 결별하고 '문명개화' 노선으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손병희가 천도교로 개편하면서 동학농민혁명과 완전히 결별하고 그가 일방적으로 '문명개화' 노선으로 선회했다고 보는 것은 일면적 해석일 수 있다. 손병희가 서양을 시대적 대세로 인정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서양문명 자체를 따라야 할 표준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이제 만약 그 정치를 한 번 변하여 천명을 공경하고 민심을 순히 하며 인재를 길러 그 기예를 발달시켜 빛나고 빛나는 문풍이 찬연히 다시 세상에 밝아지면, 가고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를 가히 이룰 것이니, 오직 우리 동반구 가운데 뜻있는 군자는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2] 비록 지금은 동양이 정치적으로도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본래 고대 동양의 정치가 추구하던 경천순천하고 민심을 천심으로 공경하고 인재를 기르고 기예를 발달시키면 다시 빛나는 문풍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동양의 고대 정치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대 경천(敬天)순천(順天)의 도덕정치를 되살리면 동양의 문명이 다시 빛을 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을 '가면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無往不復之理)'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백성을 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교(主敎)를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 이러므로 예나 지금에 대인과 지사가 이어 나서 각각 그 나라에 주교를 세우니, 이것이 백성을 화하고 풍속을 이루는 정책이니라. (중략) 고기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밝기가 바다 밖의 육지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성인의 도가 한울까지 사무쳤다 하여도 뜻이 한울 높고 땅 두터운 사이를 지나지 못하느니라. 어찌하여 그런가. 사람은 바로 한울 사람이요 도는 바로 천도이니, 능히 천도의 본성을 지키는 사람이면 때가 다르고 도가 다르나 지혜와 계책이 서로 비치고

2) 손병희, 『의암성사법설』, 「명리전」.

의사가 같을 것이니 합하면 한 이치가 되느니라.[3)]

여기서 주교는 동학, 천도교임은 말할 것도 없다. 동학 천도교가 밝힌 천도의 진리로 백성들을 화하게 하고 좋은 풍속을 이룬 다음 서양의 물질문명과 기술, 발달한 정치적 제도와 경제, 은행 제도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이 아우러진 도덕문명을 열자고 한 것이다. 서양을 일방적으로 추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백성들을 잘살게 하고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동도서기'와 비슷한 입장이긴 하지만, 여기서 '동도'는 동학・천도교의 도, 즉 천도이다. 그러므로 그의 참된 의도는 동학・천도교의 동도에 바탕을 두고 서양을 융합함으로써 동서통합의 새로운 문명을 열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서양 근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동양의 도와 덕, 특히 최제우가 다시 해석한 하늘을 통해 '인내천'에 기반한 새로운 문명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것이 '3・1독립선언문'에서 '도의적 신문명'의 비전으로 표명되었다. 그에겐 서양 근대의 수용과 함께 동학의 도(道)에 의한 서양 근대의 극복이라는 이중 과제가 이미 숙명처럼 함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1920년대의 천도교 노선 역시 '문명개화'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잘 잡히지 않는다. 이돈화와 김기전이 중심이 된 천도교 신파의 청년지도자들 역시 실력양성을 통한 서구적 근대화, 또는 자본주의의 근대문명을 지향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일면적 해석이다. 또한 '민족개량주의', '타협적 민족주의' 또는 '부르조아민족주의 우파' 등으로 분류하는 것 역시 그들의 본의를 드러내기 어려운 평가이다. 그들은 이미

3) 같은 글.

4) 조성환(2019), 「'개벽'으로 다시 읽는 한국 근대 — '삼일독립선언서'에 나타난 개벽사상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59권, 한국종교교육학회; 김용휘(2020), 「20세기 전반 천도교 지도자의 서양 인식과 신문명의 비전」, 『신학과철학』 제36호, 서강대학교신학연구소 참조.

1920년대 초에 서양문명,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1923년 무렵에는 실력양성 운동과 문화운동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명확한 '주의'(인내천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운동으로 전환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1923년 천도교청년당 창당을 통해 천도교의 인내천 주의를 바탕으로 한 7개 부문의 청년운동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에서, 계급과 민족 사이에서, 저항과 타협 사이에서, 또 유물과 유심 사이에서 중도적인 제3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다. 그들의 지향은 애초부터 『개벽』 잡지의 이름에서 표명했듯이 '개벽'이었다. 그것이 비록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내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고, 민족과 계급을 넘어서서 보편적 인간해방을, 그리고 일원론적 생명철학에 기반한 근본적인 문명의 전환을 꿈꾸었다. 다시 말해서 천도교의 지향은 손병희에게서부터 철저히 '개벽'의 지향이었지, '문명개화'가 아니었다.

이처럼 동학·천도교는 물론이고 근대한국신종교를 기존의 문법으로 읽어서는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최근에 개벽파 선언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5] 이러한 문제의식을 젊은 소장학자들의 치기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역사학계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 책은 또한 북접과 남접을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 보는 기존 역사학계의 주류적 입장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더 강화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너무 전라도 지역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남북접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질 수 없으며,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도에 한정될 수 없다는 논의도 적지 않게 개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30년간 동학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박맹수 교수는 일

5) 이병한·조성환(2019), 『개벽파선언』, 모시는사람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2020), 『근대 한국 개벽운동을 다시 읽다』, 모시는사람들.

본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전사편찬준비서류(동학당폭민)』의「동학당여문」(東學黨餘聞)이란 자료를 근거로 1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북접'에 속한 지역에서도 농민군이 봉기한 경우가 있었고, '남접'에 속하면서도 봉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1차봉기 초기를 제외하고는 남북접이 물밑으로는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6)]

또한『북접일기』는 동학혁명이 결코 전라도 중심의 지역적 사건이 아니라 1884년 3월의 1차 봉기부터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등 삼남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월 최시형이 1차봉기 직후 전봉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언급한 부분도 했지만, 또 '시운이니 금하기 어렵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봉기를 인정하기도 했다. 전라도에 동학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 역시 최시형이 3차에 걸쳐 전라도 지역 순회를 통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손화중과 전봉준은 수시로 최시형의 처소에 드나들며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나 동학・천도교에 대한 연구가 기존의 농민전쟁, 민중혁명론, 외피설, 개화와 위정척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협력과 저항, 근대성과 영성 등의 어떤 틀에서 바라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 당시,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의 가슴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것이 한갓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슴을 다시 불태울 살아있는 지혜, 정신적 유산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6) 박맹수(2011),『개벽의 꿈, 동아시아를 깨우다』,「3부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이해, 동학의 남・북접 대립설에 대한 재검토」, 모시는사람들 참조.

3. 오늘날 종교간 연대활동

끝으로 저자는 결론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의 여러 종교는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같은 시공간 속에서 공존을 모색하기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한 종교 내적 논리로 무장하여 상호 타자화함으로써 적대적 병립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것이 냉정한 평가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부분도 동의하기 어렵다. 분명 일면에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2000년대 이후 환경문제를 의제로 종교간 연대활동은 매우 빈번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새만금 의제를 중심으로 한 삼보일배에서부터 4대강 사업, 제주도 해군기지 저지, 밀양 송전탑, 탈핵 운동, 성주 소성리 사드 철폐 등의 의제에서 5개 종단(가톨릭,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의 환경단체가 결합이 된 ‘종교환경회의’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2017년 성주 사드 문제를 계기로 5개 종단 ‘종교평화회의’가 따로 결성되기도 하였다). 현재도 탈핵과 기후위기 등의 환경문제에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대부분 종교환경단체들이다. 이들은 개별적인 활동도 하지만 종교간 연대활동을 통해 대사회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는 종교지도자들이 제 일선에 위치해 전경들과 마주함으로써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시민들을 보호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또한 평신도들의 모임도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7개종단평신도협의회’에서는 2015년부터 ‘답게 살기 운동’을 중심으로 종교인 본연의 자세와 이웃종교 간의 화합과 연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한편 3·1백주년기념사업회에서는 2018년 3월 1일을 기해 7개종단의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이 시대의 의제로서 ‘생명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서도 벌써 수십 년간 이웃종교간의 다양한 대화모임과 평화활동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올해 들

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연대활동으로는 3월 제1차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될 때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주최로 7대종단의 수장들이 모여 두달간 일체의 종교활동을 정지하기로 결단을 한 일이다. 이 결정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는데 큰 분수령이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간 연대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래가 없는 것으로, 3·1운동의 사례가 한때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오늘날 사회적 의제를 중심으로 더 다양하고 더 친밀하게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3·1운동의 경험이 적지 않은 작용을 했다고 보인다.

이들의 집회에서 특징적인 것은 '공동기도회'이다. 각 종단이 각자 자신들의 의례와 기도를 돌아가면서 행하는데, 자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천도교의 '청수' 의례를 시작으로 원불교의 타종, 천주교의 기도, 불교의 염불, 기독교의 설교의 순서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종교간 대표들 사이에서는 일요일 종교의례도 한 공간에서 같이 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또는 교회당, 성당, 사찰, 교당을 따로 소유하지 말고, 한 건물에서 각 종교가 시간을 정해서 따로 의례를 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나오고 있다.

4. 나오면서

재작년 정부주도의 첫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자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서 이낙연 총리는 "촛불혁명이 동학정신의 표출"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동학 민초들의 염원과 분노는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으로 폭발했고, 해방 이후의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도 동학 정신에 뿌리를 두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매우 적확한 역사인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혁명은 단지 기존 체제에 대한 분노와 저항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벽적 열망이기도 했다. 이러한 높은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그리고 최근 종교 간의 활발한 연대 활동이 우리 사회의 물신주의와 미국식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에 공동 대응하여, 근대 산업문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태문명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의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공히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경제시스템을 만들어내어 인류에게 새 희망을 던져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신체제의 모색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 최전선에 기독교와 천도교가 다시 손을 맞잡고 나가는 그날을 꿈꿔 본다.